

머리글

잔설(殘雪)이 바람에 뿔뿔 날리던 지난 2월 새로 단장된 「통합연구」를 펴내었는데 단오(端午)가 지나고 더위가 턱밑까지 성큼 다가온 이제 두번째로 새모습의 「통합연구」를 내놓습니다. 그간 일월(日月)은 쉬 헤아릴 수 없이 떴다지고 했지만 우리는 이 책을 더욱 알차고 단정한 모습으로 벌려고 세월을 무척이도 짧게 보내었습니다.

사회과학 분야의 주제로서 가난과 부요의 문제를 성경상의 가르침에서부터 역사적, 현실적 측면에 이르기까지 심층적으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땅우리에는 가난과 고난 밖에 담겨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번 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 땅에 가난이 있음은 무작정 슬픈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서구와 같은 부요한 나라들에서는 가난과 이웃사랑 같은 가슴찡한 말들을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가난이 다 사라지기 전에 이 문제를 얼른 다룬 것은 뜻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때 우리는 이 주제를 관념적으로만 다루지 않고 실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이 주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감취두신 귀한 학문적 글동무들과 신앙적 길동무들을 보내 주심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성경상의 가난의 문제를 쓰시기 위해 성프란시스의 모습이 가득찬 방에서 수 주일을 칩거하신 대천덕(Archer Torrey)신부님, 긴급한 요구에도 쾌히 응하시면서 가난한 자와 기독교 경제원리에 대해 쓰신 이견창 교수님, 밤잠 설쳐가시면서 부요의 양면성에 대한 성경적 및 역사적 고찰을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시므로 또 그 유명한 필력을 날리신 이상규 교수님, 복음에의 열정을 가지면서 사회복지원리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신 오정

수 교수님, 금식하시면서까지 기독교 경제윤리와 그 현실성에 대해 전력을 투구하여 써 주신 조상국 교수님, 그리고 깊이 있는 통찰과 예리한 비평으로 서평을 써 주신 전강수 교수님과 김기홍 선생님께 따뜻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이 학문적 역량과 함께 이 글들 속에 지울 수 없도록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부요를 향한 탐욕과 풍요를 향한 일상성의 우상 속에 간혀 있는 오늘의 세속인과 세속적 기독교인에게 강한 질책과 올바른 방향 제시를 들려줍니다.

「통합연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늘 열린 귀를 가지면서 학문과 삶의 바른 방향을 제시할려 합니다. 인본주의적 학문과 세속주의적 인생관과 세계관이 성난 파도처럼 요란해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는 단호한 자세로 도전할 때 우리의 「통합연구」는 거뜰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일꾼들이 많이 모이니 不亦樂乎? 우리만이 싸우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니 不亦說乎?

편집인 전광식

91년

여름이 오는